

<무한도전>에 나타난 서사전략과 희극성

— <무한상사>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영성*

1. 서론 : 성격화된 캐릭터를 통한 서사 전개
2. 서사적 코미디의 구조와 특징
3. 등장인물의 성격과 기능
 - 3-1. 등장인물의 구성과 특성
 - 3-2. 유형화 된 인물을 통한 장르 확장과 희극성의 강화
4. <무한상사>에 나타난 서사구조
 - 4-1.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1편 분석
 - 4-1-1. 스토리 분석
 - 4-1-2. 내러티브와 웃음 기법
 - 4-2.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2, 3편 분석
 - 4-2-1. 스토리 분석
 - 4-2-2. 내러티브와 웃음 기법
5. 결론

국문요약

TV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사회적·문화적인 영향에 놓여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점점 그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년 전 국내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표방하며 시작된 <무한도전> 꾸준한 인기는 실로 놀랍다. 이렇게 <무한도전>이 오랜 시간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유는 성공적인 캐릭터라이즈와 이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의 성장과 변주를 들 수 있다. <무한도전>은 7명의 고정 멤버의 캐릭터를 허구와 현실을 교묘하게 접합시키며 형상화시켰다. 이런 등장인물의

* 한남대학교 박사 수료

형상과 방식은 시청자가 스타를 보며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어 공감과 웃음을 야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한 〈무한도전〉의 캐릭터 성장과 변주는 새로운 형식과 포맷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캐릭터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중심 서사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충분히 또 다른 서사와 웃음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상사〉 시리즈는 〈무한도전〉 출연자들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가장 잘 활용한 에피소드이다. 8년 동안 발전시킨 멤버들의 캐릭터를 각각의 역할에 응축시켜 회사 내의 권력 관계를 생성하며 극화시킨 〈무한상사〉 시리즈는 한 편의 시트콤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무한상사〉 시리즈의 등장인물 형상화 과정과 내러티브, 웃음 창출 방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잘 만들어진 서사물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무한상사〉 시리즈의 서사 전략과 희극성의 활용 방식은 〈무한도전〉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반복이라는 텔레비전 미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한상사〉의 전략은 현재 한국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주제어 : 무한도전, 무한상사, 리얼 버라이어티 쇼, 서사, 텔레비전, 캐릭터, 시트콤)

1. 서론 : 성격화된 캐릭터를 통한 서사 전개

‘국내 최초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표방한 〈무한도전〉이 인기를 얻은 후 같은 장르를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다양한 포맷과 전개 방식, 출연진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다수의 공동 MC 체제 형식이다. 여러 명의 고정

출연자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에 안에서 다른 역할을 맡은 출연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이끌어나간다. 한정된 고정 출연자들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전략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택한 것은 ‘캐릭터라이즈드(characterized)’이다. 캐릭터라이즈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들이 만들어낸 각자의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들의 동일시 욕망을 자극하는 동시에 출연자들과의 상호 유대감을 높이며 프로그램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서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성패는 캐릭터 구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도전〉이 성공한 리얼 버라이어티 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요인 역시 〈무모한 도전〉에서부터 구축되기 시작해서 견고하게 성장한 캐릭터에 있다. 〈무한도전〉은 극적인 구성보다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한도전〉의 고정 출연자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하하, 노홍철, 길까지 총 일곱 명이다. 타 방송사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보다 출연자 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무한도전〉 역시 현재 7인 MC 체제를 갖추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2005년 4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전신 프로그램 〈무모한 도전〉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무모한 도전〉은 저조한 시청률로 2005년 10월 29일 이후에는 〈무리한 도전〉으로 타이틀이 바뀌면서 현재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프로그램을 연출하게 된다. 김태호 PD는 〈무모한 도전〉이 시청자로부터 외면 받았던 이유를 캐릭터의 부재에서 찾았고 확실한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실내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하며 멤버 개개인의 성격을 확실히 부각시켜 코미디를 강화했다. 2006년 5월 6일 〈무한도전〉이 독립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하하

가 고정 멤버로 자리 잡았다. 그 후 하하가 군 입대를 하며 하차한 뒤 다시 합류했고, 전진이 하하대신 합류했다가 하차한 뒤 그 빈자리를 같이 채우면서 현재의 7인 MC 체제가 확립되었다.

바르트는 문화의 상징적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이항대립에 의해 의미화 되는데, 사전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을 ‘표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장신구로 치장되거나 사회·정치적인 평가가 개입되어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면 ‘캐릭터’라고 했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텔레비전 속에서 독특한 캐릭터 형성이 가능한 이유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대부분 연속물(series)이라는 것과 특유의 ‘현존감’과 ‘생동감’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청 습관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캐릭터들은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보다 이어지는 연속물로 이야기가 지속됨으로써 굳어지고, 이를 기억함으로써 캐릭터적 속성은 강화되고 유지된다.¹⁾ <무한도전>의 등장인물 역시 시청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인 평가가 개입되면서 특정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며 캐릭터화 되었고, 연속물이라는 특징 속에서 캐릭터 속성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무한도전> 캐릭터들은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실제 인물’ 사이의 거리를 파격적으로 좁히는 전략을 통해 리얼리티를 확보함과 동시에 성장과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8년 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연예인에서 대스타로 성장했고,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입대하고 제대했다. 이런 그들의 실제 일상 모습들은 고스란히 <무한도전>의 이야기 속으로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7명

1) Fiske J, 『Television culture』, London:methuen, 1987, 149~150쪽 ; 김남일,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웃음유발의 정치성 : MBC -TV <무한도전>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22-6호, 2008, 20~21쪽에서 재인용.

의 ‘캐릭터’를 7명의 ‘실제 인물’과 거의 완전히 동일시하게 됐다. 〈무한도전〉은 ‘캐릭터’와 ‘실제 인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캐릭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매회 거듭될 수록 성장하는 캐릭터는 〈무한도전〉이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댄스 스포츠, 뽕슬레이, 조정, 프로레슬링과 같은 스포츠, 패션쇼나 디자인과 같은 도전과 체험, 2년마다 펼쳐지는 무한도전 가요제와 같은 음악 쇼, 추격전, 시트콤,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무한도전〉이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고 확장하며 단순한 서사를 극복한 것은 성격화된 캐릭터의 힘이 컸다. 성장하는 캐릭터는 〈무한도전〉이 끝없이 이야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캐릭터화는 시트콤 속 등장인물을 연상시킨다. 리얼 버라이어티 쇼처럼 등장인물의 구성은 시트콤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다. 시트콤은 극적인 스토리보다는 극중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사를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대체로 시트콤의 등장인물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정형성을 강하게 띤 스테레오 타입을 활용하여 설정되는데, 이는 인물과 이야기를 설정하고 30분 내에 웃음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트콤²⁾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무한도전〉의 캐릭터가 시트콤과 비슷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 역시 〈무한도전〉이 시트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명수는 열두 살〉과 〈무한상사〉같은 극적 요소가 강한 에피소드들이 〈무한도전〉 출연자들이 오랜 시간 구축, 발전시킨 캐릭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한도전〉에 나타난 서사전략과 희극성을 연구하기 위

2) 하종원, 『글로벌 텔레비전 장르의 지역적 생산과 변용 : 한국의 시트콤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4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7, 87쪽.

해서 〈무한상사〉 시리즈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무한상사〉 시리즈는 8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 발전시킨 〈무한도전〉의 캐릭터를 뛰어나게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탄탄하고 풍성한 내러티브와 희극성을 창출시킨 서사적 코미디이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26일 〈무한상사 야유회〉로 시작된 〈무한상사〉는 8주년 특집까지 총 9편이 제작됐다. 〈무한상사〉는 멤버들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직장 생활을 적절히 패러디·풍자하며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냈다. 총 9편의 〈무한상사〉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기보다는 한 편의 시트콤³⁾이라 해도 무방하다. 시츄에이션 코미디(situation comedy)의 약칭인 시트콤(sit-com)은 드라마와 코미디의 혼성 장르로 고정된 등장인물들과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시트콤은 일종의 상황극이다. 시트콤은 스튜디오 중심으로, 매회 같은 출연자들이, 주로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고정된 무대를 배경으로, 매회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간다. 〈무한상사〉는 이런 시트콤의 모든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고정된 7명의 등장인물이 ‘무한상사’라는 직장을 배경으로 매회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무한상사〉 시리즈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시트콤의 형식을 갖춰나갔다. 〈무한상사〉 시리즈의 면밀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우선 서사적 코미디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한상사〉 시리즈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여 〈무한상사〉 시리즈가 가장 발달된 형태의 서사적 코미디인 시

3) 실제로 〈무한상사〉의 첫 화에서는 화면 왼편의 로고에 ‘리얼 시트콤’이라 명시하기도 했다.

4) 최근 시트콤은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촬영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트콤이 점점 드라마와 그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상사〉 역시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변화하는 시트콤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트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탄탄한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은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시리즈 3편의 서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뮤지컬 무한상사〉의 사건소를 분석하고 웃음 창출 방식이 각각의 사건과 어떤 모습으로 결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무한도전〉의 텍스트 내적 연구는 한국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발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서사적 코미디의 구조와 특징

코미디는 다양한 형식과 방대한 폭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코미디의 형식에는 서사적인 시와 연극, 장·단편소설, 슬랩스틱, 촌극, 판토크미, 농담, 익살, 풍자, 해학 그리고 광대극 등이 포함된다. 영화나 텔레비전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도 코미디의 형식적 다양성은 두드러진다. 버라이어티 쇼에서 단편물, 간단한 촌극에서 장편 서사물, 만화에서 시트콤 그리고 더블 액트에서 모노극, 리얼 버라이어티 쇼에 이르기까지 코미디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어떤 장르보다 방대하다.⁵⁾ 따라서 코미디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최초로 희극에 대한 정의를 내린 비평가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희극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종의 실수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오늘날의 코미디에도 적용 가능하다. 코미디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대상을 다

5) Steve Neale & Frank Krutnik, 강현두 역, 『영화 속의 코미디, TV 속의 코미디』, 한국방송개발원, 1996, 25쪽 참고.

루며 이로부터 코미디를 수용하거나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우월감이 바로 웃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⁶⁾ 또한 옥스포드 콘사이스 사전(Concise Oxford Dictionary)에서는 코미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코미디 : 명사, 가볍고 재미있으며, 대개 풍자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고, 주로 일상 생활을 표현하며, 해피엔딩의 연극(참고 : 비극)⁷⁾

위의 정의로부터 코미디는 ‘우스꽝스러운 보통 이하의 악인의 묘사’에 ‘일상생활의 묘사’와 ‘해피엔딩’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해피엔딩은 모든 사건의 갈등이 마지막에 결국 종결,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미디에 갈등이 존재하다는 것은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해피엔딩’은 내러티브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해피엔딩’이 없는 코미디는 결국 내러티브가 없는 장르라 할 수 있다.

닐과 크루닉은 코미디를 비서사적 코미디와 서사적 코미디로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코미디는 비서사적 코미디로부터 출발했다. 특별한 플롯이나 이야기 없이 슬랩스틱이나 광대극, 만담으로부터 시작한 비서사적 코미디는 단편적이고 정신없이 진행되며 웃음을 유발한다. 초기 영화나 텔레비전 코미디에서도 이런 비서사적 코미디는 큰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대중문화 속에서 이런 비서사적 코미디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여러 이유로 점점 서사적 코미디로 바뀌었다.⁸⁾ 특히 가장 발전된

6) 박근서, 『코미디, 웃음과 행복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1쪽.

7) comedy, n. stage - play of light, amusing and often satirical character, chiefly representing every life, & with happy ending (cf. TRAGEDY), Steve Neale & Frank Krutnik, 강현두 역, 『영화 속의 코미디, TV 속의 코미디』, 한국방송개발원, 1996, 26쪽.

8) Steve Neale & Frank Krutnik, 강현두 역, 『영화 속의 코미디, TV 속의 코미디』, 한국방송개발원, 1996, 207~307쪽 참고.

형식의 서사적 코미디라 평가받고 있는 시트콤은 플롯이 강조되는 상황 웃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기자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에 의한 상황웃음을 중시한다. 이는 비구조화 된 웃음에서 구조화된 웃음으로,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웃음에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웃음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⁹⁾

〈무한도전〉의 진화 과정 역시 이런 코미디의 발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한도전〉의 전신인 〈무모한 도전〉은 대표적인 비서사적 코미디이다. 〈무모한 도전〉의 첫 방송에서 멤버들은 꼴꼴이를 입고 황소와 줄다리를 하며 힘을 겨뤘다. 아무런 극적 장치 없이 출연진들이 황소와 힘으로 대결을 펼치는 것이 전부인, 일명 ‘몸개그’라 불리는 슬랩스틱으로부터 유발되는 웃음이 〈무모한 도전〉 코미디의 전부였다. 그 후로도 〈무모한 도전〉의 비서사적 코미디는 계속 됐다. 멤버들은 지하철과 스피드 대결, 탈수기와 빨래 짜기 대결, 세차 기계와 손 세차 대결, 굴삭기와 삼의 대결을 펼쳐야만 했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비서사적인 코미디는 순간적인 웃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변화 없이 고정된 웃음 전략은 반복될수록 쉽게 식상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복은 텔레비전 미학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미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반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생산·수용 과정을 어느 정도 조건화시킬 뿐 아니라 텔레비전 서사체의 지배적인 특성이기도 하다.¹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정한 기간을 바탕으로 반복된다. 매주 같은 시간 변함없이 반복되는 〈무모한 도전〉의 코미디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무모한 도전〉은 〈무리한 도전〉, 〈무한도전 - 퀴즈의 달인〉, 〈무한도전〉으

9) 최이정, 「한국시트콤 장르 경계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코미디전통과 드라마형식의 접목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제 9집, 1999, 208~209쪽 참고.

10) 주창윤, 「반복과 차이: 텔레비전과 대중미학」, 『언론과사회』제10권, 성곡 언론 문화재단 언론과 사회사, 1995, 32쪽.

로 이름을 바꿔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갔고, 캐릭터를 통해 이야기를 양산해 내며 서사적 코미디로 진화하면서 반복이라는 텔레비전 미학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했다. 이런 〈무한도전〉의 서사적 코미디 진화의 정점에는 〈무한상사〉가 있다. 특히 무한도전 8주년 특집 〈무한상사〉는 8년 동안 〈무한도전〉이 구축한 캐릭터가 빚어낸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서사적 코미디이자 시트콤이다.

채트먼은 서사물을 크게 그것이 표현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담론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사건적 요소와 배경과 인물인 사물적 요소로 구별했다. 여기서 사건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안정-불안정-안정이라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¹⁾ 이런 도식은 서사적 코미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해피엔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서사적 코미디뿐만 아니라 모든 서사적인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이다. 서사적 코미디의 특수성은 이런 공식이 아닌 해피엔딩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널과 크루닉은 서사적 코미디의 특수성을 코믹한 긴장과 놀람의 관계에서 찾았다. 일반적인 서사물에서는 긴장의 우위 속에서 필연적인 결말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을 따르는 데 반해, 코미디는 놀람의 주도 속에서 결말을 우연의 결과로 처리한다. 멜로드라마에서 놀람은 부차적이지만, 코미디에서 놀람은 지배적¹²⁾이며 중심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사물의 사건적 요소는 이러한 배열의 논리뿐만 아니라 서열의 논리도 가지고 있다. 바르트는 각각의 주요한 사건들을 핵사건(kernels), 핵보다 작은 플롯의 사건들을 주변 사건(satellite)이라 주장했다.¹³⁾ 따라서

11)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250쪽.

12) 박근서, 『코미디, 웃음과 행복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50쪽.

13)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65-69쪽 참고.

서사물의 의도와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핵사건과 주변 사건의 구분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포함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대본, 즉 미리 준비된 대본과 ‘웃음’을 목적으로 삼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인 대본이 존재한다. 사이드만은 이를 ‘이중 서사(double narrativ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서사와 준비되지 않은 서사로 이루어져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서사란 연기자들에 의해 임시변통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서사¹⁴⁾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미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언제나 준비된 대본에 맞춰 연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서사와 행위를 준비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준비된 서사는 ‘긴장’에 의해 지탱되며 이를 깨뜨리는 준비되지 않은 서사는 ‘놀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코미디에서 놀람이 긴장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코미디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중 서사의 두 번째 것, 즉 출연자들에 의해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다.¹⁵⁾ 이를 바르트의 이론에 적용시키면 ‘준비된 서사’는 ‘핵사건’으로,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는 ‘주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핵사건이 없으면 플롯의 모든 논리는 무너져버린다. 서사적 코미디에서의 준비된 서사 역시 이야기를 구축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사물에서 주변 사건이 플롯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서사적 코미디에서의 주변 사건, 즉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는 코미디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사적 코미디에서 웃음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건은 핵사건이 아닌 주변 사건,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이기 때문이다. 정

14) 방송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서사를 일반적으로 “에드리브”라 통칭한다. 에드리브란 연극이나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본이나 각본에 없는 말이나 연기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 대사를 일컫는다.

15) 박근서, 『코미디, 웃음과 행복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76쪽 참고.

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준비된 서사의 규칙을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가 무너트리면서 웃음을 유발시킨다. 특히 〈무한도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임시변통으로 고안된 새로운 서사는 등장인물들이 구축해놓은 캐릭터와 그들 사이에 맺어진 유기적인 관계로부터 야기된다. 따라서 〈무한도전〉의 서사전략과 희극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등장인물, 즉 캐릭터의 분석이다.

3. 등장인물의 성격과 기능

3-1. 등장인물의 구성과 특성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들의 관계를 ‘무한상사’라는 가상의 직장으로 패러디한 〈무한상사〉편은 멤버들이 8년 동안 구축해놓은 캐릭터의 힘이 잘 발휘된 에피소드이다. 2011년 5월 26일 〈무한상사 야유회 특집〉을 시작으로 제 2편 〈무한상사 오피스〉, 〈무한상사 신년 맞이〉, 〈설 특집 - 2012 첫 근무〉, 〈추석 특집 무한상사〉에 이어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까지 이어지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더욱 견고해졌다. 멤버들은 가상의 ‘무한상사’에서 나름의 직함을 갖는다. 그들의 직함은 출연자들의 실제 모습과 그동안 구축·발전시킨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한도전〉에서 1인자라 불리는 유재석은 박명수와 정준하보다 어리지만 무한상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부장이다. 스스로를 2인자라 칭하며 유재석 다음이라 주장하는 박명수는 차장이란 직함을 맡고 있다. 박명수와 나이는 같지만 〈무한도전〉 내 서열 3위라 불렸던 정준하는 만년 과장이고, 정형돈은 대

리, 나이가 같은 하하와 노홍철은 사원이다. 프로그램에 가장 늦게 합류했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길은 '3년 째 인턴'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다. 그들의 직함은 무한상사의 첫 번째 편인 〈야유회 특집〉에서 자막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자막으로 각 출연자들에게 직함과 나이, 이름만 명시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멤버들의 성격과 특징도 간략하게 설명해주면서 등장인물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명칭이 직함일 경우에 그것은 의미를 띤 한정 요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¹⁶⁾ 유재석이 유 부장으로, 박명수가 박 차장으로, 길이 길 인턴으로 불리게 되면서 그들의 서열은 더욱 뚜렷하게 공적인 영역의 것이 된다. 직함은 직장 내에서 위계질서를 정함에 있어 나이와 성별, 경력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유재석이 가장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벌고, 명예가 높은 1인자이지만 정준하보다 무조건 우위에 설 수는 없다. 하지만 무한상사에서 유재석이 '유부장'이 되는 순간, 유재석은 자유롭게 정준하에게 반말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상사는 멤버들에게 그들이 구축해놓은 캐릭터에 부합하는 '직함'이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관계와 서열을 더욱 뚜렷하게 공식화시키고 있다.

〈무한상사〉의 등장인물의 개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재석 부장은 어린 나이에 탁월한 능력으로 고속 승진을 한 워커홀릭에 매사 근면·성실한 성격의 인물이다. 이는 평소 〈무한도전〉에서 보여준 유재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국민 MC라고 불리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재석은 완벽주의자로 불릴 만큼 성실하기로

16) 신현숙, 『희극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90, 43쪽 참고.

유명하다. 유재석은 프로그램의 제작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작진에게 많이 제공하는 출연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나친 꼼꼼함과 완벽주의로 다른 멤버들은 그와 한 팀이 되거나 단 둘이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을 피하곤 했다. 이런 유재석의 이미지는 <무한상사>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를 제치고 승진한 유재석 부장은 까탈스럽고 잔소리가 심하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할 일이 남았다며 사무실에 남아 다른 부하 직원도 퇴근하지 못하게 한다. 부하 직원들은 그런 부장에게 불만이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아부를 하고 비위를 맞춘다. 이는 유재석의 실제 이미지이고 <무한도전>에서 구축해놓은 캐릭터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상사의 모습이다.

만년 2인자 박명수 차장은 성질 급하고 매사에 불만이 많다. 이 역시 기존 <무한도전>에서 보여줬던 박명수의 캐릭터와 흡사하다. 박명수 차장은 자신보다 두 살이나 어린 상사를 모시고 있다. 부장에게 잔소리를 들으면 때때로 말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부장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짜증을 내거나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풀기도 한다. 가장 나이가 많은 탓에 쉽게 피로를 느끼며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정준하 과장은 사람은 좋지만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어 만년 과장에 머물고 있는 인물이다. 정준하는 평소 <무한도전> 녹화 현장에 가장 늦게 오기로 유명한데 이는 코너 <일찍 와주길 바라>와 멤버들의 폭로에서 종종 밝혀지곤 했다. 그때마다 정준하는 다른 시트콤 촬영, 뮤지컬, 교통 체증을 핑계로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무한상사>에서는 이런 정준하의 평소 굼뜨고 변명과 핑계가 많은 평소 성격을 고스란히 가

지고 왔다. 2011년 정준하는 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했다. 그의 이러한 상황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 미혼이며 지각을 일삼고 눈치까지 없는 모자란 무한상사의 정준하 과장을 탄생시켰다. 무능력한 정준하 과장은 결국 〈8주년 특집 무한상사〉에서 정리 해고를 당한다. 해고를 당한 후 그는 동창에게 속아 퇴직금 전체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하고 창업한 식당 역시 망하고 만다. 이 역시 정준하의 실제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 실제로 정준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고, 노홍철은 자신의 가족까지 정준하의 소개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손해를 봤다고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무한상사〉에서는 이 관계를 살짝 비틀어 어수룩한 정준하 과장의 캐릭터를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수완으로 계산 능력이 탁월해서 ‘전자두뇌’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준하의 실제 이미지를 〈무한상사〉에서는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감나무에서 떨어져 입사 하루 만에 바보가 된 설정으로 변주했다.

〈무한상사〉의 정형돈 대리 역시 ‘정형돈’이라는 실제 인물과 그가 만들어낸 〈무한도전〉 속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교묘하게 접합시키고 있다. 정형돈은 결혼하기 전 스스로 자신을 ‘보통 남자, 대한민국 평균 남자’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은 자신처럼 편의점에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고, 그마저도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 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편의점 음식을 즐겨 먹는 정형돈은 시종일관 당당했고, 그런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묘한 카타르시스와 동질감을 느끼며 웃었다. 실제 정형돈은 결혼하고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그 후 그는 방송에서 종종 육아의 고충과 가장으로서의 무거워진 책임감을 토로하곤 했다. 이는 〈무한상사〉에서 쌍둥이를 낳고 부족한 생활비를 대리 운전을 통해 버는 서민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정형돈의 일상적인 모습은 제대로 된 캐릭터를 잡지 못해 ‘어색함’으로 일관했던 그에게 새롭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캐릭터와 이미지는 〈무한상사〉의 정형돈 대리에 투영되었다.

동갑내기 친구인 노홍철과 하하는 〈무한도전〉 내에서 종종 비교 대상이 된다. 특히 하하가 제대한 뒤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더욱 부각되었다. 2년 만에 복귀해서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하하와 그런 하하를 약 올리는 노홍철의 관계는 흥미를 유발했고, 이 관계는 결국 〈하하 vs 홍철〉이라는 에피소드로 제작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무한상사〉에서 입사 동기라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노홍철 사원은 컴퓨터도 잘 다루고 아부에 능하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하하는 컴퓨터도 거의 다루지 못하고 부장에게 대드는가 하면, 헤어스타일이나 패션도 노홍철을 따라했다는 의심을 받기 일쑤다. ‘차별하지 말라’고 아이처럼 떼쓰는 하하 사원의 모습은 8년 동안 〈무한도전〉에서 활용한 꼬마의 캐릭터이다.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노홍철 사원의 성격도 〈무한도전〉에서 형성·발전시킨 ‘사기왕’, ‘재석 간신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의 캐릭터와 관계는 직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 군상이라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가장 늦게 합류한 길에게 주어진 직함은 ‘인턴사원’이다. 〈무한도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걸돌았던 길의 캐릭터를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인턴사원’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3년 넘게 인턴 생활을 계속하던 길은 〈추석특집 무한상사〉에서 열린 신입 사원 공채에 지원하지만 낙방하고 만다. 길 대신 입사한 정직원은 가수 빅뱅의 G-드래곤인 권지용이었다. 다시 인턴으로 돌아온 길은 묵묵하게 일했고 기적적으로 정직원

이 된다. 신입사원인 권지용이 사실은 회장의 아들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길을 높이 평가해서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길에게 사원증이 전해지던 순간 멤버들은 실제로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의 감상평 역시 ‘몽클했다’, ‘감동적이었다’가 주를 이루었다. 정직원이 된 인턴사원 길을 보면서 〈무한도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시청자들의 퇴출 요구를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4년 동안 지킨 멤버 ‘길’을 자연스럽게 오버랩 시켰기 때문이다.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이 된 길 사원의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좀 더 극적효과를 안겨 줌과 동시에 그동안 〈무한도전〉에 제대로 융화되지 못했던 멤버 길을 더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무한상사〉의 등장인물들은 출연자들의 실제 이미지와 〈무한도전〉에서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바탕으로 특유의 성격을 구축해나간다. 그동안 〈무한도전〉을 통해 이미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한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의 반복적인 행위를 보면서 실재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희극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이러한 자질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암시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3-2. 유형화 된 인물을 통한 장르 확장과 희극성 강화

대부분 하나의 시트콤에는 네 가지 유형의 등장인물들이 배열된다. 첫째, 아이러니컬한 성격을 가진 등장인물로 시청자보다 열등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시청자는 등장인물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열등한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둘째, 과장된 등장인물이다. 이들은 시트콤의 재미

를 부추기며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늘 오버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행위가 과장될 뿐 열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한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낭만적 등장인물인데, 이들은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되거나 이상적인 면모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방적 등장인물로,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인물이다. 시트콤에서 특별한 웃음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인물구조에서 일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주변 인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시트콤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유형의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시트콤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느냐에 있다.¹⁷⁾ 〈무한상사〉 시리즈는 시트콤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시트콤의 인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우월함으로부터 기인하는 웃음을 주는 아이러니컬한 인물은 정준하와 하하이다. 정준하는 눈치가 없고 멍청하다. 매번 지각을 하면서도 눈에 뵈히 보이는 변명을 해서 자신보다 어린 부장에게 면박을 당한다. 컴퓨터도 다루지 못해 보고서에 삽입될 표와 그림을 직접 손으로 그려낸다. 정리 해고를 통보하기 위해 따로 불러낸 회전 초밥 식당에서 부장의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허겁지겁 초밥만 먹는다.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도 주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탕진한다. 창업한 식당은 정작 음식이 맛없어 망하고 만다. 정준하의 이런 실수와 실패는 시청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머리가 좀 모자라다’는 사연까지 더해져 정준하는 아이러니컬한 등장인물로 완벽하게 자리 매김한다. 하하 역시 아이러니컬한 인물이다. 하하는 모든 면에서 동갑내기 입사 동기인 노홍철보다 열등하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입사원의 옷을 따라 입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하하의 철없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우월감을 느

17) 주창윤·최영목, 『텔레비전 화면 깨기』, 한울, 2001, 258~259쪽 참고.

끼며 웃을 수 있다. 플라톤은 『필레보스(Philebus)』에서 힘이 없는 무지는 우스꽝스럽고 우습다고 이야기한다. 정준하와 하하의 무지함과 열등함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청자들은 그들의 약점을 너그럽게 우스운 것으로 돌려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무한상사〉라는 극 안에서 다양한 웃음의 기제와 서사 요소로 활용이 된다.

박명수와 노홍철은 시트콤에서 주된 웃음을 유발하는 과장된 등장인물이다. 박명수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호통을 친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매사에 오버한다. 〈2012년 무한상사 설 특집〉에서 사내 CL 공모를 위한 작업에서 그의 오버는 도드라진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CL 작품을 1분에 몇 개씩 그려내면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박명수의 행위는 열등하다기 보다는 과장에 가깝다. 노홍철은 〈무한상사〉의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과장된 인물이다. 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재석 부장에게 아부한다. “날씨가 뭐, 부장님 미래 같은데요. 눈이 부신데요.,” “그 넥타이 뭐예요? 일도 일등이시면서, 패션도 일등 하시려고요?”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노홍철은 윗사람에게 비굴하게 행동한다. 또한 자신이 디자인한 요란한 속옷의 기능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입고 춤까지 추며 극도로 과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유재석과 길은 낭만적인 인물에 속한다. 사장님의 명령으로 다음날 정리 해고 직원의 명단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유재석은 밤새 고민한다. 차라리 자신이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하며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리 해고된 정준하가 회사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유일한 등장인물 역시 유재석이다. 〈무한상사〉의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인물은 길이다. 3년 넘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길은 온갖 잡무를 맡고 있다. 그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점심 식사를 주문하고, 멤버들

에 입맛에 딱 맞게 커피와 차를 타고, 부장에게 신문을 챙겨주고, 정 대리의 화장실 갈 시간을 맞춰주고, 박 차장의 일정을 알려주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길은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한다. 승진과 자기 안위밖에 관심 없는 다른 인물과 달리 애사심이 투철한 길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직원이 될 수 있었다.

시트콤 등장인물의 네 번째 유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방적 등장인물이다. 시청자들은 모방적 인물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과 행위는 평범한 우리들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은 카메라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생성·변주·발전하는 캐릭터를 통해 허구와 현실을 하나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은 멤버들을 친숙한 인물로 변환시켜 시청자가 그들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며 웃음을 야기한다. 그 동질감을 통해 얻어지는 ‘공감’이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웃음 전략이고, 이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바로 〈무한도전〉이다. 그리고 〈무한도전〉의 이러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약된 에피소드가 〈무한상사〉이다. 깐깐하고 잔소리까지 심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유재석 부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통부터 치고 보지만 자신보다 어린 상사를 모시느라 불만이 가득한 박명수 차장, 조금 모자라고 눈치가 없지만 순박한 정준하 과장, 지저분하고 식탐이 많지만 생계를 위해 야간 대리운전까지 해야만 하는 정형돈 대리, 처세에 능하고 동료들을 무시하는 머리 좋은 노홍철 사원, 동료보다 떨어지는 능력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하하 사원, 그리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 온갖 잡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길 인턴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무한상사〉는 이런 모방적 등장인물에게 아이러니컬한 인물 성격, 과장된 인물 성격, 낭만적 인물 성격을 결합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주고 있다.

시트콤은 이렇게 유형화된 고정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고정되지 않은 일회적 등장인물도 자주 출연한다. 이때 일회적 등장인물은 대체로 상황의 안정적인 구도를 깨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주로 방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을 이끌어내지만 일회적 인물이 만들어낸 갈등은 마지막 시퀀스에서 해소된다.¹⁸⁾ 〈무한상사〉의 일회적 인물은 권지용이다. 무한상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기존 등장인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양산해냈다. 권지용은 하하와 길의 방해자이다. 정직원이 되길 원했던 길을 제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유재석 부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다. 하하는 그런 권지용을 질투하면서도 그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권지용에게 특히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은 정형돈이다. 그는 권지용의 패션 센스를 지적하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를 바꾸어 놓기도 하며¹⁹⁾ 사사건건 그에게 시비를 거는 적대적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권지용이 무한상사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역전된다. 길은 정직원이 되고, 사사건건 권지용을 괴롭히던 정형돈은 권지용의 노래 ‘그 대리’²⁰⁾의 주인공이 되며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18) 주창윤·최영목, 『텔레비전 화면 깨기』, 한울, 2001, 259쪽 참고.

19) 2011년 4월 30일 방영된 〈무한도전〉 247회 〈2011 무한도전 가요제 디너쇼 I〉에서 정형돈은 당시 게스트였던 빅뱅의 G-드래곤(권지용)에게 패션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G-드래곤에게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정형돈이 지적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한 웃음을 야기했다. 그 후 정형돈은 종종 다른 에피소드에서 G-드래곤의 패션에 대해 언급했고, 〈무한상사〉에서 두 사람의 아이러니한 관계를 소재로 이용했다.

20) ‘그 대리’는 G-드래곤이 부른 ‘그 XX(새끼)’를 패러디한 곡이다. ‘그 대리’의 가사는 정형돈 대리와 권지용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다.

“우연히 회사에서 그 남자를 봤어, 첫날부터 웬지 나랑 안 맞았어. 은갈치 수트를 입고, 언제적 가방을 메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 근데 오히려 그는 내게 화를 내. 패션을 아네. 누가 누구한테. 어이가 없지만, 꼴에 또 상사랍시고, 오늘도 참자. 내일도 참자. oh, 하나부터 열까지 미워 저런 스타일 딱 싫어, 집에 거울 없냐고, 네가

권지용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그가 회장의 아들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모두 해결된다. 이렇게 일회적 등장인물은 시트콤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창출해내는 이중적인 효과를 준다.

4. 〈무한상사〉에 나타난 서사구조

4-1.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1편 분석

4-1-1. 스토리 분석

1. 정사원이 된 후 첫 출근을 하는 길
2.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유재석에게 아부하는 노홍철
3. 노홍철의 아부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눈치 없는 길 때문에 다시 기분이 상해 잔소리를 시작하는 유재석
4. 출근하자마자 넥타이로 칭찬받는 박명수
5. 스트리트 패션지에 찍히느라 지각한 하하
6. 사원들의 지각으로 유재석이 발끈하자 다른 사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박명수
7. 하하와 길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잔소리하는 유재석
8. 지각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유재석에게 혼나는 정준하
9. 사무실 구석에서 잠들었다가 늦게 일어난 정형돈 때문에 짜증이 폭발한 유재석
10. 노래 - 아이유의 〈잔소리〉 : 눈치 없는 행동으로 정준하가 뺨을 맞으며 노래 종료
11. 정준하의 아들 작명 회의를 하는 사원들
12. '인생'이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짓는 사원들
13. 점심 메뉴를 정하는데 눈치 없는 행동으로 모두의 빈축을 사는 정준하

센 척할 때면 나는 정말로 미워버리겠는데. 정대리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저래 진상부리는 거야. 정 대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냐. 나중에 찢리고 탄소리하기 없는 거야.”

14. 사장에게 호출을 받아 먼저 나가는 유재석
15. 유재석이 자리에 없자 여유로운 자세로 그를 험담하는 사원들
16.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사장실을 나서는 유재석
17. 노래 -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18. 유재석의 자리에서 낮잠을 자다가 결국 잔소리를 듣는 정준하
19. 정리 해고 소식은 전하지 않고 사원들을 독려하는 유재석
20. 노래 - 신화의 〈Wild eyes〉
21. 정리 해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밀 연구 개발 센터에서 최첨단 전투복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멤버들
22. 프로젝트 중에 정준하가 만든 계란 프라이를 너무 맛있게 먹는 박명수
23. 프로젝트 결과물로 사장님께 혼나고 울면서 사장실을 나오는 유재석
24. 회식 자리에서 마냥 신난 사원들을 보며 정리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유재석
25.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사태 파악을 하고 불안해하는 사원들
26. 각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며 하소연하는 사원들
27. 정리 해고자로 정준하를 지목하는 노홍철과 박명수
28. 월급을 조금씩 줄여서 함께 잘 지내보자고 하는 정준하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다른 사원들
29. 분위기를 좋게 하려다 실수를 연발해서 유재석에게 혼나는 정준하
30. 유재석과 다른 사원들의 무시에 결국 폭발하지만 상상임을 깨닫는 정준하
31. 정리 해고자 한 명을 골라야한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유재석
32. 술집으로 향하는 사원들
33. 혼자 사무실로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사장님의 전화를 받는 유재석
34. 노래 - 뮤지컬 '레미제라블' 中 〈One day more〉
25.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유재석
26.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유재석
27. 모두 일찍 출근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원들
28. 노래 -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언 커플〉
29. 눈치 없이 다시 분위기를 망치는 정준하
30. 유재석이 출근하자 모두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사원들
31. 자신에게 노래해주려는 사원들에게 화를 내는 유재석
32.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인터넷만 하는 정준하
33. 단 둘이 점심 식사를 하는 정준하와 유재석
34. 유재석이 사주는 초밥을 정신없이 먹는 정준하

35. 눈치 없는 정준하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유재석
36. 먼저 식당을 나가는 정준하와 식당에서 고민하는 유재석
37. 회사로 돌아와 신입 사원에게 동전을 빌려 음료를 뽑아 먹고, 그를 격려하는 정준하
38. 사무실에 들어와서 해고 통보서를 받는 정준하
39. 물건을 정리해서 사무실을 나서는 정준하
40. 정준하를 따라 나가서 출입증과 법인 카드를 받아오는 길
41. 자신이 부인에게 회사에 남게 됐다고 전화하는 박명수
42. 짐을 들고 나오다가 동전을 빌려준 신입 사원과 마주치는 정준하
43. 노래 -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44.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는 정준하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유재석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의 도입부(사건 1~10)는 사원들의 출근 장면으로 시작된다. 출근하는 모습을 한 사람씩 비춰주면서 자막으로 그들의 이름과 나이, 직함, 간단한 성격을 제시해주고, 출근한 뒤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들 사이의 관계와 근황을 알려준다. 이런 도입부는 일반적인 시트콤의 시작과 같다.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시트콤의 도입부는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인물 그리고 그들의 관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제시해준다. 시트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등장인물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이다. 모든 갈등은 한 에피소드 안에서 시작되고 심화되며 해결된다. 그리고 그 해결은 다시 극이 시작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의 시트콤은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화되면서 이런 순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다음 에피소드까지 이어지는 결말을 통한 연속극 형식의 열린 구조를 채택하기도 한다. 〈뮤지컬 무한상사〉 1편의 결말은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열린 구조를 택하고 있다.

분규부(사건 11~33)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건은 ‘정리해고’이다. 평

소처럼 출근하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회의를 하는 무한상사의 사원들에게 정리 해고 소식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그들은 정리 해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첨단 전투복 프로젝트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난다. 유재석 부장은 결국 정준하를 정리 해고자로 선택하고 정준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퇴사한다.

이 에피소드의 핵심건은 ‘정리해고자 정하기’이고 주변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준하의 눈치 없는 행동과 무한상사 직원들의 다양한 일상이다. 지각한 뒤에도 눈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노래를 끝낼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유재석에게 뺨을 맞고, 유재석과 단 둘이 초밥을 먹으면서도 마냥 좋아하는 정준하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업무는 뒷전이고 탄 짓만 하며 어이없는 아이디어를 배출하는 등 한심한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플롯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웃음을 창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4-1-2. 내러티브와 웃음 기법

코미디의 내러티브 구조에서 위기 국면의 두 가지 요소는 운명의 반전인 페리페테이아(peripeteia)와 무지의 상태에서부터 인지의 상태로의 전환인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로 나눌 수 있다. 대단원(catastrophe)은 행복한 결말을 준비하는 사건의 반전(reversio)이며, 이는 발견(cognitio)에 의해 모두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대단원은 긴장과 놀람의 상황을 적절하게 위치지울 수 있다. 그 긴장과 놀람은 등장인물과 시청자들이 서로 내러티브에 관해 지식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방식의 결과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들이 예상하던 대로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산물이다.²¹⁾ 따라서 서사적 코미디의 내러티브적 특수

성은 긴장과 놀람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긴장은 서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를 예상하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흥미이며, 놀람은 이런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긴장은 '기대에서 오는 긴장'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대에서 오는 긴장이란 수용자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불확실성에서 오는 긴장은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측은 하지만 그 결과는 수용자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이다. 놀람은 이런 긴장이 깨지는 순간 발생한다. 일반적인 서사물은 내러티브의 인과적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놀람이 아닌 긴장에 의해 서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코미디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코미디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사 전개만큼이나 웃음 창출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 바로 놀람이기 때문이다.

본 텍스트는 총 44개의 사건소로 이뤄져있고 그 중 핵사건은 7개 정도의 사건소로 이뤄진다. 7개 정도의 사건소로 구성된 정리해고자 정하기는 긴장을 유발한다. 시청자들은 정리해고자의 주인공이 정준하가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이것은 정준하의 눈치 없고 바보 같은 행위와 정준하와 다른 인물과의 관계로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서사의 진행 방향은 인물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이런 인물의 사건 대응 방식은 그들의 성격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로부터 좌우된다. '정리해고자 정하기'라는 문제 상황에서 무한상사의 등장인물들은 각각 다른 대처 방식을 보여준다. 과장된 캐릭터인 박명수와 노홍철은 저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정리 해고자를 한 명 정

21) Steve Neale & Frank Krutnik, 강현두 역, 『영화 속의 코미디, TV 속의 코미디』, 한국방송개발원, 1996, 57쪽 참고.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명수와 노홍철은 주저 없이 정준하를 지목한다. 그들의 이런 성격은 사건의 갈등과 해결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며 시청자를 더욱 긴장시킨다. 낭만적인 인물인 길과 유재석은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재석 부장은 늦은 밤까지 정리해고자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한다. ‘차라리 내가 그만 둘까.’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보다는 우회하려고 한다. 이런 그의 성격은 정준하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재석은 정준하를 따로 불러 단 둘이 식사를 하며 정리 해고를 통보하려고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다. 결국 정준하는 사무실에 돌아와서 정리된 짐과 해고 통보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유재석의 사건 대처 방법은 그의 성격을 고정화시키고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 아이러니컬한 인물인 정준하의 우둔함은 문제를 오히려 가중시킨다. 지각을 한 뒤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눈치 없는 행동만 하는 정준하는 점점 유재석 부장의 눈 밖에 난다. 정리 해고 소식을 듣고 난 뒤 다른 직원들은 본인들의 생활고를 토로하며 회사에 남아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준하는 지금 자신은 행복하다고 미안하다 이야기한다. 이런 정준하의 눈치 없는 행위를 통해 시청자들은 그가 정리 해고자로 선택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긴장에서 오는 기대’이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건들만 배치된 플롯만 이어진다면 시청자는 결코 웃을 수 없다.

자칫 긴장으로만 치달을 수 있었던 〈무한상사〉의 플롯에서 웃음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채택된 것은 주변 사건, 즉 준비되지 않은 서사이다. 번듯한 직함을 가지고 회의실에 앉은 등장인물들은 진지한 얼굴로 회의 자리에서 회사 업무가 아닌 최근 정준하가 낳은 아들의 작명과 ‘인생’이란 단어로 짓는 이행시에 몰두한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긴장을 깨뜨리

는 효과를 준다. 정준하의 득남 소식을 축하하면서 즉흥적으로 시작된 이름 짓기는 시청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을 준다. 다른 사원들이 지어준 '정구', '정말', '정산', '정찰기', '정학'이라는 이름에 화를 내며 '박퀴벌', '노인정'이라 맞받아치는 정준하의 모습은 언어적 유희를 야기하며 희극성을 창출한다. "인생은 왜 산다고 생각하냐?"는 유재석의 갑작스런 질문에서 파생된 '인생' 이행시로 시작된 농담과 말장난 역시 언어적 유희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리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참여한 프로젝트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인물들의 애드리브와 슬랩스틱 코미디로 시청자들을 웃게 한다. 핵사건 사이에 다채로운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한상사>의 준비되지 않은 서사는 준비된 서사를 때론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때로는 시청자에게 예기치 않은 웃음을 유발시키면서 서사적 코미디로서 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4-2.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2,3편 분석²²⁾

4-2-1. 스토리 분석

1.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오는 정준하
2. 가끔씩 나오는 정준하 이름에 분위기가 나쁜 사무실
3. 혼자 공원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지만 실패하는 정준하
4. 과장으로 승진한 정형돈과, 대리로 승진한 노홍철, 승진하지 못한 하하를 위로해주는 사원들
5. 새로운 프로젝트 치킨 사업에 대해 회의하는 사원들
6. 코를 파는 길을 심하게 혼내고, 모든 사원을 회의실에서 내쫓는 예민한 유재석

22) 2013년 6월 8일 방송된 <8주년 특집 무한상사>는 총 120분 분량 가운데 20분을 차지하고 있다. 1편과 2편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 방영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편과 3편을 함께 묶어 하나의 에피소드로 분석한다.

7. 다시 들어오라고 소리 지르는 유재석
8. 치킨 브랜드 이름을 짓는 회의를 하는 사원들
9. 다시 화를 내고 직원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내는 유재석
10. 다시 사원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여 회의를 재개하는 유재석
11. 광고 모델 선정, CM 송 만들기 회의를 하는 사원들
12. 단 둘이 점심을 먹자는 유재석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는 사원들
13.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유재석
14. 정리해고가 될까봐 유재석을 피하는 사원들
15. 노래 - 씨애플루의 〈외톨이야〉
16.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남편이 해직 소식을 알게 되는 노라
17. 혼자 영화관에 있다가 노라의 전화를 받고 거짓말하는 정준하와 눈물을 흘리는 노라
18. 노래 - 씨스타의 〈나 혼자〉
19. 2달 후 정준하가 개업한 고깃집에 찾아가는 사원들
20. 노래 - 여행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21. 정형돈이 과장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정준하
22. 화분을 들고 고깃집에 찾아온 유재석
23. 남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는 정준하를 걱정하는 사원들
24. 1998년, 정준하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 유재석
25. 지각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구박받는 유재석
26. 모두에게 인정받는 수석 입사 사원 정준하
27. 모든 면에서 우월한 정준하와 비교 당해서 불만이 쌓인 유재석
28. 감나무에 걸린 길 부장의 가발을 내리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바보가 된 정준하
29. 정준하 식당의 고기가 너무 맛이 없어 짜증을 내는 사원들
30. 계란 프라이를 해달라고 하는 박명수
31. 고기가 맛이 없어 서로 돈을 내지 않겠다고 다투다가 결국 계산하게 된 정형돈
32. 노래 -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33. 가게 매출 때문에 고민인 정준하
34. 주식이 급락해서 퇴직금을 탕진하게 된 정준하
35. 정준하 가게로 들어 닥쳐 협박하는 사채업자들
36. 눈물을 흘리며 한강으로 향하는 정준하
37. 노래 - 김광진의 〈진심〉

38. 배가 고파 자살을 포기하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먹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 '계란 프라이' 가게를 떠올리는 정준하
29. 계란 프라이 가게 '연탄불 후라이후라이'로 성공을 거두는 정준하
30. TV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정준하
31. 노래 - 벅의 〈맨발의 청춘〉
32. 흡쇼핑 출연 섭외 전화를 받는 정준하
33. 생방송 흡쇼핑에 함께 출연하게 된 무한상사 사원들과 정준하
34. 정준하를 무시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35. 응원에서부터 무한상사에게 밀리는 정준하
36.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37. 진정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인기를 끄는 정준하
38. 직접 요리와 시식을 하는데 실수를 연발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39. 과대, 과장 광고로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는 무한상사 사원들
40. 직접 요리를 하는 정준하를 약 올리며 무시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41. 직접 시식을 하기 위해 나온 정준하의 아내 노라
42. 노라의 시식을 의심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43. 기세 좋게 먹기 시작하는 노라를 보고 놀라는 무한상사 사원들
44. 계란 프라이 50개를 모두 먹은 후에 '한판 더'를 외치는 노라
45. 무한상사와 신경전을 벌이는 정준하
46. 50개의 계란 프라이를 더 먹는 노라를 보며 전의를 상실한 무한상사 사원들
47. 100개를 다 먹은 노라 덕분에 주문이 폭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정준하
48. 치킨 100마리를 먹겠다고 선언하고 먹기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사원들
49. 비빔밥을 또 먹기 시작하는 노라
50. 순살 치킨에서 뼈가 나오자 숨기는 무한상사 사원들
51. 자장면, 햄버거, 스테이크 등을 계속해서 먹는 노라
52. 치킨 먹는 것을 결국 포기하고 노라를 구경하는 무한상사 사원들
53. 연탄불 후라이 후라이가 매진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정준하와 노라
54. 방송이 끝나고 감격하는 정준하와 서로 다투는 무한상사 사원들
55. 노래 - 올스타의 〈하나되어〉 : 패배한 무한상사의 별칭, 〈쟁반노래방〉 패러디
56. 치킨 사업 실패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무한상사의 대표 이사 교체 기사와 정준하의 성공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보는 무한상사 사원들
57. 무한상사 긴급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원들
58. 노래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中 〈지금 이 순간〉

59. 무한상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정준하
60. 유재석의 박수 소리에 잠이 깬 뒤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 정준하
61. 정리 해고 소식이 돌고 있다며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는 유재석
62.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정준하

이번 에피소드는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 ①은 정리해고를 당한 정준하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재석 역시 정준하를 해고했다는 죄책감에 예민해져 있다. 정준하의 아내는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왔다가 남편의 정리해고 사실을 알게 된다. 정준하는 식당을 차리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재기를 꿈꾸지만, 식당은 망하고 주식은 폭락해서 퇴직금을 모두 탕진한다. 사채까지 쓴 준하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특기를 살린 계란 프라이 가게를 차려 성공을 거둔다. 홈쇼핑에서 무한상사에서 내놓은 치킨과 맞대결을 펼친 준하의 계란 프라이는 놀라운 판매율을 기록하며 승리한다. 그 후 승승장구하던 정준하는 연매출 700억을 올리는 자산가가 되어 무한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준하의 꿈으로 밝혀진다.

사건 ②는 1998년 정준하와 유재석이 입사하던 다음날 체육 대회로 시작한다. 당시 유재석은 촌스러운 패션, 모난 성격, 무능력함으로 모두에게 구박을 받는다. 그에 반해 수석 입사한 정준하는 운동, 노래, 외국어, 레크리에이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인물이다. 하지만 감나무에 걸린 부장의 가발을 내리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준하는 지금의 눈치 없고 모자란 사람이 되었다.

4-2-2. 내러티브와 웃음 기법

사건①에서 시청자들은 정준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며 긴장과 놀람을 반복한다. 정준하는 정리 해고를 당한 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하며 집을 나서고 혼자 극장이나 만화방에 가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 이런 정준하의 사건 대응 방식은 그의 아내 노라가 회사에 찾아 오면서 또 다른 사건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맛이 없는 고기를 파는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친구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하는 정준하의 사건 대응 방식을 보며 시청자들은 그가 실패할 것을 예상한다. 이런 시청자들의 기대에 의한 긴장은 정준하가 자살을 포기하는 순간 깨진다. 연이은 악재로 삶의 의욕을 잃고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려던 정준하는 배가 고파 자살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노래하던 그가 배고픔에 자살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건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예기치 않은 놀람을 가져온다. 정준하가 자살하지 않을까 긴장하던 시청자들은 엉뚱한 그의 행동에 놀라며 웃을 수 있다.

준하의 '후라이 후라이'와 홈쇼핑에서 대결을 펼치게 된 무한상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 간계를 꾸민다. 준하와의 경쟁에서 지면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준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운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도 과연 무한상사 직원들의 계략이 성공해서 정준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다. 시청자들은 이미 무한상사의 치킨 프로젝트가 얼마나 허술하고 허황된 회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이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상한다. 그러나 무한상사 직원들의 화려한 응원 무대에 이은 초반 준하의 패배는 시청자들의 기대를 깨뜨린다. 이러한 기대의 배반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긴장을 안겨준다. 하지만 실수만 거듭하는 무한상사

직원과 달리 정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하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한다. 위기감을 느낀 무한상사 직원들은 과대광고까지 하며 정준하를 이기려고 하지만 홈쇼핑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로 그들의 계약은 실패로 돌아간다. 정준하의 아내 노라가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며 ‘후라이 후라이’를 끝도 없이 먹어 치우자 무한 상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변경해 치킨 100마리를 먹으려 하지만 이도 실패로 끝난다. 결국 홈쇼핑 대결은 시청자들의 예상대로 정준하의 승리로 끝이 난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무한상사 직원들은 연이은 매출 하락으로 인한 대표 이사 교체될 것이며 정준하가 연매출 700억을 버는 자산가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정준하가 새로운 대표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 예상한다. 바보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던 준하가 턱시도를 차려 입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곡 ‘지금 이 순간’을 부르며 당당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음을 깨닫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하지만 이런 긴장은 모든 것이 준하의 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깨지고 놀람을 야기한다. 정준하가 노래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감동적인 장면은 유재석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로 오버랩 된다. 전환된 화면에서는 정준하가 유재석 부장의 자리에서 잠들어있고 그런 그의 귀에 대고 박수를 치는 유재석이 등장한다. 꿈에서 깬 정준하와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다른 등장인물의 표정은 서사의 긴장을 깨뜨리는 놀람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는 기법으로 사용된다.

사건①은 전형적인 시트콤 구조를 가지고 있다. 〈8주년 특집 무한상사〉 1편에서 드라마틱하게 끝난 결말은 사건①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준하는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았고 다른 사원들의 일상도 1편의 도입부와 다르지 않다. 이런 결말은 서사적 코미디에서 이야기하는 해

피엔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준하 개인에게는 그의 성공이 모두 꿈이었다는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무한상사〉 에피소드가 모두 끝난 후 등장한 “정 과장은 있어줘야 무한상사의 완성”이라는 자막은 이 결말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데이비드 그보트는 시트콤이 과거의 희곡에서 시작한 장르이긴 하지만 시트콤은 이미 완성된 구조에서 시작하여 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끝이 난다²³⁾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시트콤에서 에피소드의 끝이란 처음의 상황으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시트콤이 축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분열과 범죄에 직면하여 반복적인 상황을 보호하고 재정의하는 ‘재친숙화’인 것이다.²⁴⁾ 모든 이야기가 정준하의 꿈이었다는 결말은 재친숙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무한상사〉의 서사구조가 시트콤의 특징을 따르고 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건②는 정준하와 유재석이 입사한 다음날 열린 체육대회로 시작된다. 현재 무한상사에서 유재석은 어린 나이에도 승승장구하는 부장이고, 정준하는 만년 과장으로 지내다가 정리해고 당한 무능력하고 멍청한 인물이다. 하지만 1998년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다. 유재석은 패션 감각도 떨어지고 눈치도 없어 상사들의 구박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수석으로 입사한 정준하는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하고, 패션 감각도 있으며, 각종 자격증을 보유한 능력 있고 매너 있는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은 부조화와 불균형에서 오는 웃음을 유발한다. 〈무한상사〉 속 유재석 부장뿐만 아니라 실제의 유재석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국민 MC라 불리고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재

23) 김승수·이정표, 『다매체 시대의 한국형 시트콤』, 『방송연구논문집』 6집, 1994, 138쪽.

24) 김주영, 『시트콤 〈올드미스다이러리〉에 대한 장르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능을 선보이고 탁월한 인성까지 갖추고 있어 유재석과 하느님의 합성어인 ‘유느님’이란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반면 〈무한상사〉의 정준하와 실제 정준하는 눈치 없고, 잘 빠치고, 식탐도 많다. 이런 두 사람이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낯설게 한 결과 기존 〈무한도전〉에서 구축해놓은 캐릭터의 조화와 균형 깨뜨려 웃음을 창출한다.

2편과 3편을 이루고 있는 사건소들은 모두 62개이다. 그 중 핵사건은 16개 정도의 사건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주변 사건, 숨겨진 서사 역할을 한다. 치킨 사업 회의를 하면서 CM 송을 만든다거나, 광고 모델을 추천하는 과정은 모두 등장인물들의 농담과 말장난, 슬랩스틱으로 이뤄져있다. 흡쇼핑 대결에서 진 무한상사 직원들이 갑자기 받은 벌칙은 〈쟁반노래방〉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서사들은 시청자들의 긴장을 깨뜨리면서 놀람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5. 결론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그 어떤 텔레비전 텍스트보다 당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유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끌어가는 장르기 때문에 그 수명은 자연히 짧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전보다 트렌트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한도전〉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파를 타고 있다. 이렇게 〈무한도전〉이 다른 텔레비전 예능·오락 프로그램보다 오랜 기간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방송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정 출연자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매력적

으로 안착되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구축된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익숙함은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하지만 변화와 발전이 없는 캐릭터는 시청자에게 익숙함을 넘어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끼게 만든다. 〈무한도전〉은 이미 구축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더하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캐릭터를 다양하게 변주해왔다.²⁵⁾ 캐릭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성장은 〈무한도전〉이 고정된 틀 없이 매번 다른 아이টে็ม으로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들을 패러디와 비틀기를 통해 흡수 할 수 있게 했다.²⁶⁾ 〈무한도전〉의 능수능란한 캐릭터 변주와 성장을 통한 장르의 혼종성이 가장 잘 집약된 에피소드는 바로 〈무한상사〉 시리즈이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같은 고정 출연자들이 등장해서 무한상사란 이름의 직장을 고정 배경으로 매회 독립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무한상사〉 시리즈는 가장 발달된 형태의 서사적 코미디 양식인 시트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무한상사〉 시리즈가 한 편에 끝나지 않고 인기를 끌면서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무한상사〉 속 등장인물은 출연자들의 실제 성격과 〈무한도전〉 안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멤버들의 관계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특성까지 더해져 형상화되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이런 성공적인 캐릭터화를 바탕으로 긴장과 놀람이라는 서사적 코미디의 특성을 활용하여 웃음을 창출해내면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임수를 수행했다. 〈무한상사〉에 드러난 고도의 서사 전략과 희극성은 〈무한도전〉이 가지고 있는 '서사물'로서의 가치를

25) 배우리, 『왜 그는 늘 2인자일까』,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0, 93-94쪽 참고.

26) 황진미,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무한도전〉은 어떻게 예능의 레전드가 되었나?」, 『웃기는 레볼루션』, 2012, 92쪽.

발견하게 했으며, 시, 소설, 희곡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만 머물러 있는
문학과 서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MBC TV 〈무한도전〉

- 2011년 5월 21일 250회 〈무한상사 야유회〉
- 2011년 10월 8일 270회 〈무한상사 오피스 특집〉
- 2012년 1월 14일 284회 〈신년 맞이 특집〉 1부
- 2012년 1월 21일 285회 〈신년 맞이 특집〉 2부
- 2012년 9월 29일 297회 〈추석특집 무한상사〉 1부
- 2012년 10월 6일 298회 〈추석특집 무한상사〉 2부
- 2013년 4월 27일 327회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1부
- 2013년 6월 1일 332회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2부
- 2013년 6월 8일 333회 8주년 특집 〈뮤지컬 무한상사〉 3부

2. 단행본 및 논문

- 김승수·이정표, 『다매체 시대의 한국형 시트콤』, 『방송연구논문집』 6집, 1994, 138쪽.
- 김남일,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웃음유발의 정치성 : MBC -TV 〈무한도전〉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6호, 2008, 20~21쪽.
- 주창윤, 『반복과 차이: 텔레비전과 대중미학』, 『언론과 사회』 제10권, 성곡 언론 문화 재단언론과 사회사, 1995, 32쪽.
- 최이정, 『한국시트콤 장르 경계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코미디전통과 드라마형식의 접목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제 9집, 1999, 208~209쪽.
- 하종원, 『글로벌 텔레비전 장르의 지역적 생산과 변용 : 한국의 시트콤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43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7, 87쪽.
- 황진미,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무한도전〉은 어떻게 예능의 레전드가 되었나?』, 『웃기는 레볼루션』, 2012, 92쪽.
- 배우리, 『왜 그는 늘 2인자일까』,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0.
- 박근서, 『코미디, 웃음과 행복의 텍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90.
- 주창윤·최영목, 『텔레비전 화면 깨기』, 한울, 2001.
-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Steve Neale & Frank Krutnik, 강현두 역, 『영화 속의 코미디, TV 속의 코미디』, 한국 방송개발원, 1996.

Abstract

The Narrative Strategy and Comedy of *Infinite Challenge* (Muhan Dojeon)
- Focused on *Muhan Corporation* Series

Kim, Young-Sung (Hannam University)

A 'real variety show', one genre of the celebrity entertainment shows originated from *Infinite Challenge* (Muhan Dojeon) 8 years ago, is gaining continuing popularity. Although a variety of real variety shows are broadcast on several TV channels, representing a wide variety of formats and casts, they usually do not last very long. In particular, the TV celebrity entertainment shows are under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so their lifespan is getting shorter and short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wer of *Infinite Challenge* which has been broadcast for as many as 8 years is really amazing. The reason why 'Infinite Challenge' has been loved by the public for a long time can be the successful characterization and the growth and variation of the characters based on it. *Infinite Challenge* ingeniously combined fiction and reality and created images of the characters of seven fixed members. This way of establishing the images of characters leads to sympathy and laughter since it causes viewers to identify with the celebrities. The growth and variation of the *Infinite Challenge* characters can make stories with new forms and formats through this process. When the personalities and relationships of the characters are built concretely, they can create another narration and laughter sufficiently in spite of the central description that is rather weak.

Muhan Corporation (Muhan Sangsa) series is the episode that made the best use of the characters of the cast of *Infinite Challenge*. It may safely be said that *Muhan Corporation* series is a single sitcom dramatized by creating the power relationship with the characters developed for 8 years and condensing them into each role. This means that the series is in accordance with the excellent form of narration, exquisitely being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symbolization of the characters, narrative and the way of creating laughter. This narrative strategy and utilization of comedy of *Muhan Corporation* series enrich the narration of *Infinite Challenge* and help the

82 대중서사연구 제30호

show to go beyond the bounds of repetition-the limit of esthetics of the television show. And the strategy of *Muhan Corporation* resolves the problems of present Korean real variety shows and proposes the right direction at the same time.

(Key Words : *Infinite Challenge*, Muhan Dojeon, real variety show, TV show, comedy)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